

# 미야자키 하야오의 『붉은돼지(紅の豚)』론

김화영\*  
kim6849@hanmail.net

## <目次>

- |                      |                        |
|----------------------|------------------------|
| 1. 서론                | 4. 아픔을 담고 있는 전쟁이야기     |
| 2.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돼지'   | 5. 유토피아적 공간 속 소녀와 중년여성 |
| 3. '붉은' 돼지와 '붉은' 비행기 | 6. 결론                  |

主題語: 애니메이션(Anime), 전쟁(War), 『붉은 돼지』(Porco Rosso), 돼지(Pig), 붉은색(Red), 유토피아(Utopia), 여성(Female)

## 1. 서론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紅の豚)』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1992년 작품이다. 월간 『모델 그래픽스』에 연재하던 「비행정 시대」를 원작으로 기내 상영용 30~40분짜리로 기획되었다가 내용이 수정되어 90분짜리 극장용 단편으로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당시 유고내전, 소련붕괴 등 긴박한 세계정세로 인하여 내용에 진지함이 더해졌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공허한 시대 상황을 뛰어넘어 묘사하고 비행기들의 박진감 넘치는 공중전 장면’<sup>1)</sup>을 그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감독이 중년이 된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자전적 작품으로 반과시즘과 무정부주의적 성격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그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작품으로도 뽑힌다.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는 1999년 4월 18일 『『붉은 돼지』메모 연출각서』에 다음과 같이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편에 지친 비즈니스맨들의 산소결핍으로 한층 둔해진 머리로도 즐길 수 있는 작품, 그것이 『붉은 돼지』다. 소년소녀들이나 아줌마들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지만, 우선 이 작품이

\* 수원과학대학교 관광일어과 조교수

1) 황의웅(1997)『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예술, p.107

‘피곤해서 뇌세포가 두부가 된 중년 남자들을 위한 만화영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밝고 쾌활하지만 야단법석은 떨지 않고, 역동적이지만 파괴적이지는 않다. 사랑은 가득하지만 성욕은 필요 없다. 궁지와 자유로 가득 차 있고, 자살한 설정은 배제하여 스토리는 단순하게 등장인물의 동기도 명쾌 그 자체다.

남자들은 모두 밝고 쾌활하며, 여자들은 매력 넘치고 인생을 즐긴다. 그리고 세계 역시 한없이 밝고 아름답다. 그런 영화를 만들자는 것이다.<sup>2)</sup>

미야자키 하야오는 『붉은 돼지』가 하루하루 피곤해서 뇌 자체가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에 억눌려 있는 ‘중년남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그 내용은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파괴적이지는 않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본 작품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지브리 애니메이션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면을 보이면서도 종전의 만화들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붉은 돼지』에 나타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분석해보고, 『붉은 돼지』만이 갖고 있는 보편성과 특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인 줄거리는 『붉은 돼지』 이전의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나, 이후의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비교하면 그 작품내용은 빈약하고 시시하기 그지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의 배경이 주로 허구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모호했던 것에 비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명확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작품보다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면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등장하는 전투기는 모두 고물이고, 하늘의 해적이라며 나타나는 사내들 모두 깔깔대며 웃기만 하는 어린애들 같다. 해적들의 약탈 장면들조차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싸움처럼 느껴질 뿐이다. 오히려 『천공의 성 라퓨타(天空の城ラピュタ)』(1986)의 도라 일당의 경우가 리얼리티가 있게 느껴질 정도이다. 공중전을 벌이는 데도 전사자가 나오지 않고 격투 장면에서도 피를 흘리는 장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 작품이 어떻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다른 작품들과 다른 면을 보이는지, 또 어떤 면이 지브리 애니메이션과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돼지’와 ‘붉은색’, ‘여성’이란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의 『붉은 돼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인공 돼지 ‘마르코’의 콧수염에 주목하여 19세기에는 콧수염이 있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옥살이를 했던

2) 미야자키 하야오 저, 황의움 옮김(2013) 『미야자키 하야오 출발점 1979-1996』대원씨아이(주), p.381

것)과 연관지어 ‘돼지’는 정치적으로 반대성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거나, 미야자키 하야오의 말을 빌어서 돼지를 ‘무력하게 늙어가는 중년의 자의식의 반영’<sup>4)</sup>의 표현이라고 단순하게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품 속 ‘돼지’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과 동화에 나타난 ‘돼지’의 이미지와 상반되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며, 제목 『붉은 돼지』에서의 ‘붉은색’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석이 없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각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 2.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돼지’

먼저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작품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요약해 본다.

1920년대 초,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중해 전반을 배경으로, 비행기 조종사로 활동하는 포르코 로소(Porco Rosso, 붉은돼지) 마르코(マルコ)에 관한 이야기이다. 마르코는 제 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공군의 에이스 파일럿이었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에서 공군 조종사로 참전하여 많은 동료를 잃은 뒤에 전쟁에 참가했던 자신과 인간에 대한 혐오감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마법을 걸어 돼지가 되어 군대를 떠난다.

인간이 아닌 돼지가 되어, 이탈리아의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해적을 소탕하여 현상금으로 생활하며, 오랜 친구 지나를 만나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간다. 해적들은 그를 포르코 로소(붉은 돼지)라고 부르며 연합하여 그를 물리치기 위해 맞서지만 이길 수 없자 미국의 조종사 도널드 커티스를 끌어들여 대적한다.

도널드와의 대결로 비행기가 파손되자 마르코는 피콜로에게 비행기 수리를 의뢰하여 비행기 공학을 전공한 피콜로의 손녀 피오와 함께 새 비행기를 타고 무인도에 도착한다. 그러나 자신의 무인도에 매복해있던 해적들과 마주치게 되고 도널드와 공중전으로 승부를 내기로 하지만, 공중전은 결국 맨손의 결투로 이어지고 마르코가 승리한다. 그 뒤에 피오는 지나를 따라 떠나고, 도널드와 마르코가 화해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난다.

여기에서 우선 작품에서 중요한 캐릭터인 ‘돼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 작품에서 ‘돼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돼지’는 작품의 제목에도 들어가 있으면서 작품의 주인공도 ‘돼지’가 된 중년 남성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부분의 남성

3) 황의웅(2002)『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렇게 창작한다!』시공사, p.70

4) 김형석·김성훈(2014)『『붉은 돼지』에 나타난 캐릭터와 텍스트의 의미구조 분석-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한국디자인문화』20권 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p.265

주인공은 어린 소년들로서 『붉은 돼지』는 그런 작품들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중년 남성을 그리고 있어서 ‘안티히어로’<sup>5)</sup>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인공 마르코는 나이는 40대 정도로 키가 작고 배도 나온 아저씨이며 담배를 매우 좋아해서 장면 장면마다 담배를 물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이 자주 그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돼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돼지는 재물과 의식의 풍족함을 상징하며 복을 가져다주는 길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돼지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고 믿거나 행운이 들어올 것을 믿기도 한다.

하지만 보편적인 동화나 만화에서는 ‘돼지’가 갖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잘 먹어서 뚱뚱한 사람을 돼지로 비유하기도 하고 남보다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돼지로 비유되기도 한다. 보편적인 동화나 만화에서 ‘돼지’란 캐릭터는 악당이나 게으른 캐릭터로서 대체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를 풍자한 조지 오웰의 풍자문학 『동물농장』(1944)에서 말, 개, 당나귀, 고양이, 닭, 새, 돼지로 사람을 의인화하였는데 그 가운데 다른 동물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독재자로서 ‘돼지’를 그리고 있다.<sup>6)</sup>

『붉은 돼지』를 제외한 다른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작품에서도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로써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원령공주(もののけ姫)』(1997)에서 마을을 덮치는 재앙신도 돼지로 형상화하여 그려지고 있다. 원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거대한 다타리가미(재앙신)이라 불리는 멧돼지가 미친 듯이 쳐들어온다. 주인공에 의해 제압당하는 멧돼지는 “더러운 인간들아! 너희가 어찌 네 증오와 한을 알겠느냐”하며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죽어간다. 불행과 죽음을 부르는 다타리(재앙)라는 상징을 돼지로서 그려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그리고 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2001)에서도 치히로의 부모님이 돼지로 변하는 장면이 나온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돼지가 된 부모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며 자신들의 딸인 치히로도 알아보지 못한다. 하쿠는 돼지가 된 치히로의 부모를 보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하는데 남의 음식도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먹어치운 욕심쟁이이자 먹고서 게으름에 겨워서 누워서 자고 있는 동물로써 돼지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게으르다는 것도 모르는 동물이며 그건 스스로를 비교하고 자각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동물<sup>7)</sup>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일하지 않는 인간들이 돼지로 변한다는 것은 돼지의 보편적인 이미지인 게으름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

5) 황의웅(2002) 전계서, p.70

6) 정 위엔지에(1996)『사진 찍는 돼지 임금님』비룡소, pp.239-240

7) 전윤경(2010)『애니메이션 사랑을 탐하다』새로운 사람들, pp.64-65

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미야자키 하야오는 어째서 주인공 캐릭터로 ‘돼지’를 사용한 것일까?

미야자키 하야오는 주인공을 ‘돼지’로 그린 이유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마르코의 이미지는 원작이 되는 「비행정 시대」에서 대부분 완성되었으며 발상의 출발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돼지가 된다. 이 돼지는 나의 일부이다. 아드리아 해에 숨겨 둔 집을 갖고 비행정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 내 어릴 적 꿈이었다’<sup>8)</sup> 고 밝히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 돼지 마르코와 미야자키 감독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말한 ‘나이가 들면 돼지가 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황의웅은 『붉은 돼지』의 마르코의 모델이 실제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명은 뭇소리니의 아들로 하늘을 동경해 비행사가 된 ‘부르노’이고, 또 한명은 독일의 에이스 파일럿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명 높던 전투기 킬러 ‘리히트 호펜’이다. 이 두 명은 포르코와 겹치는 각각의 공통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부르노에게는 ‘포르코 네로’라는 별명과 ‘지나’라는 연인이 있다는 점, 리히트 호펜에게는 그의 별명 ‘레즈 바론=red baron=붉은 남자’에서 느껴지는 색상의 이미지이다.<sup>9)</sup>

작품의 주인공이 실제 주인공이라는 설정은 흥미롭다. 하지만 그 실제인물과 공통점은 있을지는 모르나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돼지’의 의미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2013년 인터뷰<sup>10)</sup>에서 “돼지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지 않을 까란 생각에 ‘붉은 돼지’의 주인공을 만들었다”라고 주인공을 돼지로 설정한 이유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인공 마르코는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살인이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커다란 죄를 말한다.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아래의 페라린과 포르코의 극장에서의 대화는 왜 미야자키 하야오가 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돼지를 주인공으로 선택했는지를 보여준다.

마르코 : 파시스트가 되느니 돼지가 되는 것이 좋아.

8) 황의웅(2002) 전계서, p.70

9) 황의웅(2002) 전계서, p.71

10) <http://interview365.mk.co.kr/news/62339>(검색일: 2016.7.5.)

언제나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돼지가 되는 것이 파시스트인 인간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마르코는 말한다. 이 대사에서 왜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필이면 돼지를 주인공으로 선택했는지 알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마르코가 선택한 것은 인간보다도 못하게 여겨지는 돼지이다. 마르코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돼지로 살기를 원한다.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돼지로 살기를 원하는 마르코를 통해서 전쟁을 계속에서 일으키는 국가와 민족에 대해 비판하며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아가는 일면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치히로가 돼지가 된 부모를 유바바의 마법에서 풀어주게 되고, 돼지였던 부모는 다시 사람의 모습을 되돌아온다. 하지만 『붉은 돼지』에서는 마르코가 사람으로 돌아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돼지’가 된 것은 누군가의 마법에 의해서 돼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돼지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 때문이라고 한다. 11)

『붉은 돼지』에서 ‘돼지’란 기존의 게으르고 먹기만 하고 나태한 동물이 아니라 신념이 강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돼지로서 그리고 있어 일반적인 ‘돼지’의 이미지를 뒤엎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3. ‘붉은’ 돼지와 ‘붉은’ 비행기

미야자키 하야오는 군수물품을 만들고 비행기회사를 경영하는 큰아버지와 공장장인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 때문일까? 그의 영화 대부분은 하늘을 나는 장면이 꼭 삽입되어있다. 『붉은 돼지』는 1920년대 비행정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공중전 장면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 이외에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의 도라 일당,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용으로 변한 하쿠, 『하울의 움직이는 성(ハウルの動く城)』에서 새로 변하는 하울 등이 모두 비행 장면을 보여주며, 전투 장면도 대부분이 공중전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화려한 비행장면이 주는 속도감과 고도감은 보는 이들에게 영상미와 함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 하늘을 난다는 것,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작품에서는 더욱 그렇다.

11) 무라세 마나부 지음, 정현숙 옮김(2006) 『미야자키 하야오의 숨은 그림 찾기』 한울, pp.145-146

마르코: 날지 못하는 돼지는 평범한 돼지다.

날 수 없는 돼지는 그냥 돼지일 뿐이다. 여기에서 난다는 것은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나는 마르코의 비행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모든 비행장면이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하늘을 난다’라는 것은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이며, 그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늘 희망하는 ‘자유’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붉은색’에 주목하고 싶다. 제목에서 돼지는 ‘붉은’ 돼지이며, 마르코가 타고 있는 비행기도 ‘붉은색’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돼지의 색깔은 분홍색일 것이다. 물론 멧돼지라면 검정색에 더 가까울지 모르나 이 작품에서 마르코는 핑크 돼지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제목은 ‘붉은’ 돼지이다. 그리고 비행기라고 한다면 어두운색의 비행기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전투기라고 한다면 회색이나 카키색의 전투기가 연상된다. 하지만 마르코의 비행기는 파란 하늘에 눈에 띄는 눈부시고 화려한 ‘붉은색’의 비행기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렇다면 ‘붉은 색’의 이미지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작품의 ‘붉은’ 돼지를 다시 분석하기로 한다.

붉은 색은 상징성이 강한 색으로써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색이기도 한다. 우선 많은 나라에서는 붉은 색을 성스러운 색으로써 생각해 왔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국기에 흰 바탕에 붉은 원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태양을 가르키는 것으로 붉은 색 태양이 ‘은혜’와 ‘자비’이란 상징을 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피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정신적이고 형식적인 희생’을 포함하며, 나아가서는 ‘애국심’과 ‘활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 국기의 붉은 색은 ‘혁명’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종교적인 이미지와 연관되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여 붉은 와인을 마시는 관습도 있다.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을 통한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의 붉은색은 여성의 월경과 연결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성되고, 중세에는 붉은 색은 ‘범죄’, ‘전쟁’, ‘분노의 색’, ‘마물’의 이미지와 맞물려 생각되어졌다. 예를 들면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에서는 주홍색은 인간을 얽매는 굴레를 뜻하며 간통한 여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그려져 있다. 12)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가 온천장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야만 하는 다리도

12) 하마모토 다카시외 지음, 이동민 옮김(2007)『색채의 마력』아트북스, pp.54-62

21세기 연구회 지음, 정란희 옮김(2006)『하룻밤에 읽는 색의 문화사』위즈덤하우스, p.48

‘붉은색’ 다리이며 온천장도 붉은 색으로 강하게 칠하여져 있다. 이러한 다리는 ‘아름다움’과 ‘위험’의 ‘신호 표시’로써 붉게 그려져 있으며 여주인공 치히로가 그러한 색에 매료되어서 온천장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sup>13)</sup>

그렇다면 『붉은 돼지』의 그려진 ‘붉은 돼지’와 ‘붉은 비행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 것인가? 주인공 마르코는 비행기를 수리하며 잠시 짬을 내어서 예전에 전우였던 페라린과 만난다.

페라린 : 모험비행가의 시대는 끝났단 말이다!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그런 시시한 스폰서라도 두지 않으면 날 수가 없다구!

마르코 : 난 내 돈벌이가 되는 일에만 하늘을 날지.

마르코 : 돼지에게는 국가도 법률도 필요 없어.

마르코 : 날지 못하는 돼지는 평범한 돼지다.

마르코 : 파시스트가 되느니 돼지가 되는 편이 좋아

페라린은 ‘국가나 민족’에 속하지 않고서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충고하지만 마르코는 돈벌이가 되는 일에만 하늘을 난다고 잘라서 말한다. 페라린이 말한 하늘을 난다는 것은 단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 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 하늘을 나는 것이다. 하지만 마르코는 현상금 사냥을 위해서도 하늘을 날고, 자신의 오래된 친구인 지나를 위해서도 하늘을 날고, 커티스와의 내기에서 이겨 피오를 구하기 위해서도 하늘을 난다.

마르코는 은행원이 애국채권을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에 “인간들끼리나 해”라고 말하거나, 전우 페라린이 정부가 달라지면 마르코는 범죄자가 될 거야라는 말에 마르코는 “돼지에게는 국가도 법률도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리고 정부와 같이 일하라는 페라린의 권유에 “파시스트가 되느니 돼지가 되는 게 좋아”라고 뿌리친다.

평범한 핑크색 돼지가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붉은 돼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평범한 비행기가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비행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13) 시미즈 마사시 지음, 이은주 옮김(2004)『미야자키 하야오 세계로의 초대』좋은책만들기, p.72



마르코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어떠한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에 나는 것이 아닌 ‘자신’과 ‘친구’를 위한 ‘희생’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인 핑크색 돼지가 되면 아니 되며, 카키색 전투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붉은색의 의미에 함축되어 있던 ‘희생’이란 의미가 고스란히 제목 『붉은 돼지』와 비행기 색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본 작품의 프롤로그에 적혀 있는 ‘명예와 여인과 돈을 걸고’ 하늘을 나는 ‘붉은’ 돼지라는 글은 의미심장하다. 지금까지 ‘~위해서 난다’라는 의미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전우들의 희생과 자기를 믿고 곁을 지켜주는 지나와 피오의 희생, 그리고 ‘현상금’을 걸고 싸우기는 하지만 납치된 여자아이들을 구하고, 또한 피오를 구하기 위한 마르코의 희생이 바탕이 된 ‘돈’, 이들 모두에는 ‘희생’이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 4. 아픔을 담고 있는 전쟁이야기

미야자키 하야오는 1941년 생으로 그야말로 2차 대전이 한창인 때에 태어났으며 철이 들 즈음에는 패전국가라는 수치심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패전으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고 어머니가 난치병에 걸리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유년시절의 상처가 그의 작품에서 반전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대표적으로 반전주의를 드러내는 작품으로는 『반딧불의 묘(火垂るの墓)』(1988)를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리얼리즘 감독인 다카하다 이사오 감독의 『반딧불의 묘』는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시를 리얼리티 있게 재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의 폐해를 돌아보고,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일반인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인 세이타 남매의 비참한 삶은 물론이고, 주변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도 매우 현실적이다. 어린이들도 보는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세이타의 엄마가 화상을 입고 죽음을 맞아 화장되는 장면은 성인에게도 거부감이 들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물론 『반딧불의 묘』와 같은 작품의 경우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고, 패전국인 일본을 스스로 피해자인 척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작품이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자칭하고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인정하지만 이 작품이 1차적으로 전달하고자하는 것은 전쟁의 실체를 리얼하게 보여줌으로서 전쟁이 다만 한 순간의 것이 아니며 얼마나 긴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파시즘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서의 『붉은 돼지』는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면서도 반파시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페라린 : 너한테는 반역죄와 밀입국죄 퇴폐사상과 파렴치하고 나태한 돼지가 된 죄 그 밖에 수많은 죄목이 씌워져 수배가 된 것은 알고 있겠지? 바보 같은 놈! 웃을 때가 아니야! 네 녀석 비행정까지 압수한다고 들었다. 마르코 공군으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줄 수 있다구.

포르코 : 파시스트가 되느니 돼지가 되는 편이 나아.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작품에서도 시대적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으며, 주제의 식을 작품 내 대사나 장면으로 눈에 띄게 드러내는 작품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는 노골적으로 반파시즘, 아나키즘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전주의를 드러내면서도 작품은 내내 밝고 활기찬 기운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유럽, 심지어는 전쟁에 적극 참여했던 나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의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르코와 공적들의 전투장면들조차 마치 장난같이 느껴지며, 공적들이 배를 약탈하여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는 장면은 오히려 귀엽기까지 하다. 심지어 작품의 메인 전투인 커티스와의 공중전에서는 탄약을 사용하여 치러지는 전투가 아니라 비행정 안에 가지고 있던 잡동사니들을 집어던지면서 마치 아이들 다툼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렇지만 작품 내의 캐릭터들은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마르코는 동료들을 모두 잃고 전쟁의 허무함에 스스로 돼지가 되었고, 지나는 남편을 셋이나 잃고, 친한 친구인 마르코마저 돼지가 되고 만다. 작품의 장면 장면들은 만화적이면서도 인물들은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붉은 돼지』메모 연출각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남자들은 모두 밝고 쾌활하며, 여자들은 매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긴다. 그리고 세계는 한없이 밝고 아름답다.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인물묘사는 병산의 일각이다. 포르코, 피오, 도날드 커티스, 피콜로, 호텔 마담, 맘마 유티 단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외 공적들, 이들 주요 등장인물이 모두 인생을 새겨온 리얼리티를 가질 것. 바보스러운 소란은 괴로운 일을 품고 있기 때문이고 단순함은 경험을 통해 진보하며 손에 넣은 것이다.<sup>14)</sup>

14) 미야자키 하야오 저, 황의움 옮김(2013) 전게서, p.381

미야자키 하야오는 등장인물이 모두 ‘인생’을 살아온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소란도 ‘괴로운 일’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남자들의 어이없는 싸움에는 ‘전쟁’이란 상처를 잊지 위한 마르코의 몸부림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딧불의 묘』와 『붉은 돼지』는 각기 다른 방식을 통해 전쟁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전쟁’으로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세이타와 세이코 남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허무함만이 남아 스스로 인간이 아닌 돼지가 되어 현실을 도피하며 살아가게 된 마르코를 통해 전쟁의 아픔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유토피아적인 공간 속 소녀와 중년여성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에서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키워드로 유토피아를 꼽을 수 있다.<sup>15)</sup>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표적인 유토피아는 『천공의 성 라퓨타』에 나타나는 신비의 섬 ‘라퓨타’이다. 작품에 나타난 ‘라퓨타’ 섬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꿈꾸는 낙원의 세계가 그려져 있다. 푸른 하늘과 숲, 그리고 갖가지 동식물 등을 통해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붉은 돼지』에서의 유토피아는 조금 다르다. 작품을 보는 내내 본 작품에서 나타나는 유토피아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물론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이 막 종료되어 어수선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코가 살고 있는 무인도는 다르다. 마르코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자신이 날고 싶을 때면 언제나 하늘을 난다. 보편적인 ‘낙원’의 이미지와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마르코의 무인도도 ‘낙원’이라고 할 수 있다.

피오 : 아름다워라.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

15) 김화영(2010) 「宮崎駿의 『もののけ姫』에 그려진 유토피아와 여성」 『일본연구』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251-268  
김화영(2011) 「『천공의 성(天空の城ピュタ)』론-유토피아와 여성과의 관계」 『일본문화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pp.95-107

마르코와 피오의 첫 비행에서 피오가 무인도를 내려다보며 하는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굳이 라퓨타와 같은 상상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현실 세계가 낙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는 유토피아적 세계와 함께 공동체적 생활 또한 강조하고 있다. 미야자키 감독은 가쿠슈인대학 정치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한 그의 사상의 영향으로 그의 작품에서는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많다.

예를 들면 『천공의 성 라퓨타』의 슬랙계곡이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風の谷のナウシカ)』(1984)에서의 바람계곡, 『원령공주』에서의 다타라 집단을 예로 들 수 있다. 공동체 내의 사람들은 모두 함께 일하고, 서로 간에 욕심을 내거나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한 공동체적 생활 모습은 『붉은 돼지』에서도 역시 드러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은 피콜로 공장에서 포르코의 비행기를 만드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남편들이 모두 전쟁과 돈벌이로 멀리 떠나고 여자들만 남았지만, 여전히 공동체 생활은 유지된다. 다 같이 모여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식사를 하고, 함께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장면에서 어린 여자든 노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일을 한다. 이러한 장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보여주는 공동체 생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브리 작품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성 캐릭터’이다.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인공’으로서의 여성 캐릭터는 언제나 ‘어린 소녀’였다. 따로 꼽을 필요도 없이 거의 모든 작품에서의 주인공은 어린 소녀 캐릭터였다. 예를 들면 『천공의 성 라퓨타』의 소녀 캐릭터는 미래지향적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치유’의 의미 또한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원령공주』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 여성 주인공이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여성 캐릭터는 『붉은 돼지』에서도 나타난다.

피오 : 뽀뽀해볼까요? 개구리 왕자님도 뽀뽀로 인간으로 변했잖아요.

포르코 : 뽀뽀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라구.

피오 : 난 안 되나?

포르코 : 넌 좋은 애야. 널 보면 인간도 괜찮은 것 같군.

피오의 캐릭터는 여성이 자연을 회복시켰던 이전의 캐릭터와는 조금 다르지만,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고 돼지가 되어버린 마르코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지나와 함께 떠나는 피오가 마르코에게 키스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 후에 커티스가 마르코의 얼굴을 보며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독일의 그림형제의 유명한 동화 「개구리왕자」에서 공주님의 키스로 왕자가 되는 개구리처럼 마지막에는 마르코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마르코는 자신 스스로 돼지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던 ‘파시스트가 되느니 돼지가 낫다’ 라는 대사는 마르코가 다시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품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 캐릭터인 ‘지나’와 ‘피오’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지나는 마르코의 오랜 친구이며 마르코의 전우의 아내이기도 하다. 지나 또한 전쟁으로 남편을 셋이나 잃는 등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과 부대끼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작품에 나오는 모든 남성들은 호텔 아드리아노의 주인인 지나를 여신으로 생각하며 그녀와의 사랑을 꿈꾼다. ‘지상과의 점점 적인 역할을 하는 지나지만 그녀와 결혼한 남자는 살아남지 못하며 ‘날 수가 없다’.<sup>16)</sup>

마르코를 사랑하는 지나는 마르코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러나 마르코는 지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것은 지나로부터는 마르코가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여타 다른 작품에서도 ‘중년의 여성’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붉은 돼지』에서도 지나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마지막까지 마르코는 지나에게서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피오’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소녀 피오와 중년 여성의 지나의 역할은 확연하게 반대적인 성향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커티스와 마르코의 싸움을 중단시키는 것은 지나라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처에 대한 치유에 대해선 ‘지나’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을 이끄는 여성으로서는 볼 수가 있다.

또 하나 『붉은 돼지』의 여성들! 공장장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진 피콜로 공장의 여성들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피콜로공장이 한때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의 비행기를 만든 라이언회사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고, 라이언 회사는 근처 주민인 아주머니가 파트타임으로 비행기를 만들었던 공장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7)</sup>

작품 속 남자들은 ‘전부 바보짓을 하며 날아다니고 여자들은 전부 현명하고 부지런히 일하

16) 무라세 마나부 지음, 정현숙 옮김(2006) 『미야자키 하야오의 숨은 그림 찾기』한울, pp.141-142

17) 미야자키 하야오 저, 황의움 옮김(2013) 전개서, p.495

는 착실한 사람들<sup>18)</sup>로 그려지고 있다. 피콜로공장의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산조각이 났던 전투기가 다시 생명을 부여 받는다.’<sup>19)</sup> 이것은 여성의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모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커티스와의 싸움에서 망가진 마르코의 비행기를 다시 제작해주는 것이 바로 피콜로 공장의 여성과 피오이다. 이것은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여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피콜로 사장 : 여자가 좋아. 일도 잘하고 끈기도 있단 말이야.

작품 속에서 나이가 어린 피오는 비행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년 여성인 지나는 아드리아해에서 바를 혼자 경영하는 운영자이며, 피콜로공장의 할머니들은 비행기를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듯이 이들 여성 모두 능력이 출중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남성들은 해적이거나 말도 안 되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싸움을 자청하는 아이처럼 매우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sup>20)</sup>

커티스를 마르코에게 싸움을 거는 ‘파시스트’적인 인물로 본다면 마르코의 망가진 비행기는 전쟁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국가와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망가진 국가와 민족을 다시 치유해 주는 것은 바로 피콜로 공장의 여성들이다. 앞서 『원령공주』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도 여성들은 세계를 구원하는 치유의 캐릭터로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붉은 돼지』에서 세계를 구원하는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본성으로서 다시 한 번 ‘모성’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붉은 돼지』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치유를 하는 존재이며, 평화와 안정을 도반하고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모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6. 결론

본고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키워드’들과 다른 작품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붉은 돼지』에서만 나타나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작품을 분석해 보았

18) 미야자키 하야오 저, 황의음 옮김(2013) 전개서, p.496

19) 무라세 마나부 지음, 정현숙 옮김(2006) 전개서, p.140

20) 김화영(2011)「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나타난 ‘전쟁’과 ‘여성」『한일군사문화』한일군사문화학회, p.255

다. 먼저 작품 속 ‘돼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돼지’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한 이미지는 고스란히 애니메이션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붉은 돼지』에서의 ‘돼지’는 단순하게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부를 위해서가 아닌 명예와 여성과 돈을 위해 나는 소신이 있는 ‘돼지’로써 그려져 기존의 돼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색채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목의 ‘붉은 돼지’처럼 붉은 색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돼지라고 하면 ‘분홍색’을 연상하지만 여기에서 ‘붉은색’이 갖는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것은 주인공이 타는 비행기까지 동일시가 되어 ‘붉은색’을 띄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돼지가 살고 있는 무인도의 의미를 되살펴 보았다. 무인도는 곧 유토피아적 공간이며, 또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공동체적인 마을의 하나인 피콜로공장을 유토피아적 장소로서 상정하여 기존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과 비교분석을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유토피아적 공간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피오는 마르코에 뽀뽀를 하여 그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고 마르코의 부쉬진 비행기를 멋지게 재생산해 내는 모습에서 ‘치유적인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중년여성 지나에게는 재생산적 의미가 보이지 않으나 작품의 마지막에 보이듯이 남성들의 싸움을 멈추게 하는 존재로서 ‘평화와 안정’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오나 지나, 그리고 피콜로공장의 여성들에게는 ‘생산과 평화’, ‘안정’을 부여하는 ‘모성’적인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김화영(2010)「宮崎駿의 『もものけ姫』에 그려진 유토피아와 여성」『일본연구』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251-268
- \_\_\_\_\_ (2011)「『천공의 성(天空の城ピュタ)』론-유토피아와 여성과의 관계」『일본문화연구』동아시아일본학회, pp.95-107
- \_\_\_\_\_ (2011)「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나타난 ‘전쟁’과 ‘여성」」『한일군사문화』한일군사문화학회, p.255
- 김형석·김성훈(2014)「『붉은 돼지』에 나타난 캐릭터와 텍스트의 의미구조 분석-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한국디자인문화』20권 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p.265
- 무라세 마나부 지음, 정현숙 옮김(2006)『미야자키 하야오의 숨은 그림 찾기』한울, pp.145-146
- 미야자키 하야오 저, 황의움 옮김(2013)『미야자키 하야오 출발점 1979-1996』대원씨아이(주), p.381, p.495, p.496
- 시미즈 마사시 지음, 이은주 옮김(2004)『미야자키 하야오 세계로의 초대』좋은책만들기, p.72
- 전윤경(2010)『애니메이션 사랑을 탐하다』새로운 사람들, pp.64-65
- 정 위엔지에(1996)『사진 찍는 돼지 임금님』비룡소, pp.239-240
- 하마모토 다카시의 지음, 이동민 옮김(2007)『색채의 마력』아트북스, pp.54-62
- 황의웅(1997)『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예술, p.107

황의웅(2002)『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렇게 창작한다!』시공사, p.70, p.71

21세기 연구회 지음, 정란희 옮김(2006)『하룻밤에 읽는 색의 문화사』위즈덤하우스, p.48

〈인터넷검색〉

<http://interview365.mk.co.kr/news/62339>(검색일: 2016.7.5.)

텍스트의 인용은 DVD 미야자키 하야오(2004)『붉은 돼지 Porco Rosso(紅の豚)』대원미디어에 의한다.

---

논문투고일 :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6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6년 08월 04일

2차 수정일 : 2016년 0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8월 15일

---



〈**요약**〉

미야자키 하야오의 『붉은 돼지』론

김화영

『붉은 돼지(Porco Rosso)』는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가 월간 『모델 그래픽스』에 연재하던 『비행정 시대』를 원작으로 1992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당시의 유고내전이나 소련 붕괴 등의 긴박한 정치적인 배경아래 감독은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도 전쟁을 떠나서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을 작품 속에 그리려고 하고 있다. 감독은 주인공 마르코는 중년의 자신의 투영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를 통해 반파시즘과 무정부주의를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반전주의를 표방한 작품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붉은 돼지』는 몇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 작품만이 갖고 있는 보편성과 특이성을 다른 미야자키 하야오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작품 속 돼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돼지’는 작품명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대체로 돼지는 더럽고 나태하여 게으른 이미지이지만 『붉은 돼지』에 그려진 돼지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살아가는 멋진 중년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붉은색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돼지란 일반적으로 핑크색 돼지를 떠올리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는 붉은색의 이미지를 가해 단순히 하늘을 나는 돼지가 아닌, 그 안에는 친구들의 희생, 친구들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담고 있어서 붉은색의 ‘희생’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붉은색 이미지는 주인공의 비행기의 색깔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유토피아적 장소로서 마르코가 거주하는 무인도와 피콜로공장을 들어서 유토피아적 장소에서의 여성의 성역할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강인하고 자립적인 성격으로 그려져 있어서 다른 미야자키의 작품의 여성성보다도 보편성을 갖는 부분임을 알았다.

『Porco Rosso』 by Hayao Miyazaki

- An Animation Study -

Kim, Hwa-Young

『Porco Rosso』 was created by Hayao Miyazaki in 1992, based on his original work 『Hikotei Jidai (The Age of the Flying Boat)』 released in a monthly magazine 『Model Graphix.』 I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Yugoslavia wars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Miyazaki presents in his works people who wish to leave their warring reality. Miyazaki mentioned that Marco in 『Porco Rosso』 is the reflection of middle-aged himself and he wanted to represent, through Marco, anti-fascism, anarchism, and further his anti-war stance. This study analyzes 『Porco Rosso』 by a few key words and examines its both common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to other works by Miyazaki.

First, images of a pig were analyzed. A pig, normally considered dirty and lazy, is the main character here and is also a part of the title itself. In 『Porco Rosso』 at least, a pig is depicted as someone in his middle age who is true to himself and follows his heart. Next, meanings of the color “red/crimson” were examined. Pigs are in pink in general. Miyazaki, however, focused on the sacrifices that Marco made for his friends as well as the sacrifices done by his friends. Thus, he highlighted the color “red” representing sacrifices and incorporated the character of a simply flying pig with a valuable meaning. The same color and its embedded meaning can also be applied to Marco’s flying boat. Lastly, Piccolo’s repair shop and the island where Marco lives in were taken together to examine women’s gender roles in Utopian places. Women are strong and more independent than men in 『Porco Rosso,』 which is in line with the women’s gender roles in other works by Miyazaki.